

안철수·손학규·정운찬 ‘제3지대’ 공감…潘과는 입장차

<기문>

설 연휴 발걸음 분주했던 ‘제3지대론’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접촉이 이어지면서 조기 대선 정국의 유동성을 높였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정국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각기 주창해온 ‘공정성장’과 ‘동반성장’ 실현 등을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이뤘다.

정 전 총리측은 이날 “정 전 총리와 안 전 대표가 이날 만남을 통해 엄중한 시국 상황과 경제위기 극복방안, 미래 한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육·과학기술·창업 분야의 혁명적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같은 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회동을 가졌고 개혁 정부가 들어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개혁정부가 들어셔야 한다고 말했고, 반 전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반 전 총장에게) 귀

與·野 따로 연대 모색 가능성

문재인 대세론 고착화면

제3지대론 급물살 탈 수도

국 후 일련의 연행에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입당을 원하더라도 지금은 함께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9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회동, 분권형 개헌 추진과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이날 “올해 대선에서 ‘정치교체’의 시대적 과제 수행에 협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며 “반(反) 패권주의, 개헌 연대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지도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반 전 총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지난 27일 회동을 가졌다. 범 여권의 유력주자인 반 전 총장과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손 의장의 이날 단독회동은 그 자체로 시의성과 정치적 함

의가 컸지만 뚜렷한 성과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개헌을 추동하는 세력의 ‘정치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온 것이었다.

이날 회동에서 손 의장은 반 전 총장에게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 기반을 둔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 전 총장이 보수 세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야권에 정치적 정체성을 두지 않을 경우 연대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회동을 갖고 대선 전(前)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과 손 의장이 이끄는 국민주권개혁회의가 내달 중에 세력 간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이 반 전 총장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연대를 추진하고 야권은 국민의당·국민주권개혁회의·민주당 내 비문 그룹 등이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는 판세가 고착화될 경우, 제3지대에서의 정치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현 정국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각기 주창해온 공정성장과 동반성장 실현 등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양측간 연대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연합뉴스

대선주자들 설 민심 잡기 분주한 행보

文, 고향 양산서 대선 구상

安, SNS로 유권자 만나

李, 日대사관 앞 소녀상 찾아

안희정, 선산 성묘·정국 구상

여야 대선주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따라 ‘벗꽃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고향인 경남 양산 자택에서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며 정국 구상을 하다가 지난 29일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후 경남 밀양으로 이동, 부산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 세배를 한 뒤 양산 자택으로 돌아와 휴식과 함께 정국 구상을 이어갔으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상경했다.

문 전 대표는 선거인단 모집 개시 일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당내 경선 일정이 제시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2월 초·중순께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경선캠프를 발표하고 내달 말이나

3월 초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권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설 당일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한 뒤, 충주로 이동해 모친 신현순 여사와 함께 보냈다. 이어 성묘를 마치고 가족, 친지와 점심을 함께한 뒤 곧바로 상경했다. 29일 오전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는 마포구의 사무실로 출근, 참모들과 내부 토론을 통해 대권행보 구상을 가다듬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연휴 첫날인 지난 27일 자신이 창립한 ‘안랩’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구인 노원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29일엔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2012년 대선 당일 문재인 당시 후보를 전폭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실을 알면서도 흑색선전을 하면 인간으로서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출국과 관련해서 “다들 당선된다고 생각한 시절이니 무대 뒤로 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선거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나면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고, 그 당시 문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지적했다.

설날 임진각에서 열린 ‘제33회 재이북 부고 망향경모제’에 참석했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9일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현대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감상했다. 30일엔 청년창업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설날인 28일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하고 정부추합청사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노동자를 만났다. 또 광화문에서 열리는 세월호 유가족의 합동 차례에 참석했다. 29일엔 공식일정 없이 설 이후 행보를 준비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휴 기간 동안 논산시 연무읍의 한 마을회관과 충북 청주의 선산을 찾아 세배와 성묘를 하는 외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을 가다듬었다.

김부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 새해 인사를 했으며 남경필 지사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께 세배를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측 ‘탄핵 심판 늦추기’ 돌발 변수?

대리인단 변론 보이콧 시사…3월 13일 이전 선고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리인단의 ‘보이콧’ 변수가 등장하면서 선고가 예상 시기를 넘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보이콧’은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9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이 정족수(7명)를 가까스로 채우게 되고, 또 재판관 9명 중 2명이나 공석이 되면서 심판 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으며 현재와 국회 간 ‘내통’을 의심했다.

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결심”으로 으름장을 놔다. 중대결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대리인단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진화했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이 카드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킨다는 눈초리를 받는 대리인단으로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공정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학계에서 엇갈린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것도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한다면 현재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

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한 헌재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며, 탄핵심판 당사자이자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많이 받아들여진다.

다만, 실제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시하는 재판 제도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생긴다. 한 고위 법관은 “이론상으로는 변호사가 없이 탄핵심판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중도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보이콧’ 현실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현재나 국회, 대통령 측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8일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가 어떤 ‘묘안’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홍콩 · 마카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 062)228-1199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홍콩 · 마카오

캐주얼

CHPF07

초특가 필수기

홍콩.마카오.심천 4일 · 5일

8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31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

마카오 항공(NX 항공)

🎁

특식 3회(광동식, 암자식, 한식)

클래식

CHPF05

동반 아동 할인

홍콩(디즈니랜드).마카오 4일 · 5일

1,3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31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

마카오 항공(NX 항공)

🎁

특식 3회(포르투갈식, 점토담섬, 한식)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가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인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가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이벤」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패키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장전/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